

이승우, 드디어 K리그 무대 밟나...국내 복수 구단과 협상 중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 유스팀서 성장 수월 삼성·전북 현대 등 관심...이적료 등 걸림돌

벨기에 무대에서 최근 뛰지 못하고 있는 이승우(23·신ퟔ트라이언)가 프로축구 K리그1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축구계에 따르면 이승우가 K리그 입성을 위해 몇몇 구단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는 벨기에를 떠나 유럽 내 다른 구단 이적을 추진했으나, 유럽 이적시장이 현지시간으로 1일 마감을 앞둔 국내 복귀로 방향을 틀었다. 이승우 측 에이전트도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인 건 사실이다. 선수 본인도 K리그 진출에 관심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이승우에 관심을 보이는 구단은 수원 삼성, 전북 현대, 강원FC 등이다. 이 중에서 이승우의 고향 팀인 수원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가운

데 전북도 영입전에 뛰어 들었다. 백승권 전북 단장은 "우리 팀의 영입 리스트에 있는 건 맞다. 이적료나 연봉 등이 어떻게 되는지 조건을 타진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그 이상 진전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성장한 이승우는 2016~2017시즌 바르셀로나 B팀에서 프로 데뷔했으나, A팀인 1군 진입에 실패한 뒤 2017년 여름 이탈리아 세리에A 헬라스 베로나로 이적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의 생활도 순탄치 못했다. 두 시즌 동안 모든 대회에서 43경기에 출전해 단 2골을 넣는 데 그쳤다. 벨기에를 고집하던 이승우는 2019년 8월 벨기에 중소구단은 신ퟔ트라이언으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

섰다.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한 변화였다. 그러나 벨기에에도 다르지 않았다. 첫 시즌 리그 4경기에 출전에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이번 시즌 초반 출전 기회를 늘리며 그라운드에도 모습을 드러냈지만, 최근 9경기 연속 결장 중이다. 피터 마에스 감독 부임 후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2부리그 몇몇 구단과 이스라엘 클럽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끝내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유럽 무대 잔류와 K리그 진출을 놓고 고민하던 이승우는 유럽 이적 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국내 복귀에 무게를 둔 상태다. 이승우는 지금까지 K리그에서 뽐내지 못했다. 문제는 이적료다. 신ퟔ트라이언과 계약 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아 이적료가 발생한다. 신ퟔ트라이언이 이승우를 영입할 때 150만 유로(약 20억원)



이적료는 이적료를 투자했다. 그 때문에 K리그 구단들은 유럽 이적시장이 마감될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의 몸값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의도다. 또 완전 이적보단 임대 후 완전 이적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꺼내고 있다. 뉴스

‘양현종 부재’...KIA 윌리엄스호, 젊은 대안 만들까?

외국인 브룩스·멧텐 활약 중요해져...유망주엔 새로운 기회



멧 윌리엄스 감독이 이끄는 KIA 타이거즈는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2021 스프링캠프에 돌입한다. 그렇지만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커다란 변수가 발생했다. FA 투수 양현종이 KIA와 협상을 종료한 것이다. 스프링캠프에서 양현종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생겼다. 양현종은 자신이 설정한 두 번째 데드라인인 지난 달 30일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쪽단급 선언을 했다. 마이너리그도 불사하고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의지였다. 메이저리그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잔류를 기대했던 구단은 존중했다. 대신 토종 에이스 없이 2021 시즌을

시작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애런 브룩스-다니엘 멧텐과 양현종이 이끄는 완전체 선발진을 기대했다. 양현종은 작년까지 7년 연속 풀타임 선발이었다. 평균 30경기와 180이닝을 소화한 부동의 에이스였다. 대체 불가의 투수였다. 이런 투수의 부재는 치명적인 손실을 가깝다. 선발진은 양현종, 외인 투수 2명과 작년 선발투수로 활약한 임기영과 이민우로 예상했다. 그러나 양현종이 빠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밀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다. 일단 투수들이 브룩스와 멧텐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졌다. 최대한 이닝을 소화하며 양현종

의 몫까지 나눠야 한다. 유망주들에게는 새로운 기회的大门이 열렸다. 3년 차 우완 김현수, 군에서 복귀한 김유신 등이 선발진입을 노크할 수 있다. 김현수는 작년에 4경기에 선발등판했다. 키움을 상대로 호투를 펼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유신은 상무에서 선발경험을 쌓았고 1군 캠프 진입에 성공했다. 작년 퓨처스 팀에서 선발수업을 했던 2년차 필승맨 정태영도 있다. 신인들 가운데 1차 지명투수 이의리, 2차 1번 박진우와 2차 2번 장민기 등도 있다. 이들 가운데 갑자기 깜짝 활약을 하는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다. 작년 시즌 선발투수로 나선 이적생 장현식도 있다. 부진한 투수로 고개를 숙였지만 올해는 합친 변화를 꿈꾸고 있다. 김현수와 함께 퓨처스 캠프에서 훈련을 시작한다. 현실적으로 양현종의 빈자리를 당장 메우기는 힘들다. 윌리엄스 감독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젊은 투수들을 두루 기용하며 선발진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퓨처스 팀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준 다면 발탁할 전망이다. 과연 포스트 양현종이 나타날까. 윌리엄스호가 난제를 안고 스프링캠프 발걸음을 내딛는다. 김민정 기자

유효슈팅 1개... ‘단짝’ 케인 잃고 길 잃은 손흥민

최근 공식전 5경기째 침묵...케인 부상 이탈 속 손흥민도 고립



토트넘 손흥민(오른쪽)이 1월 31일(현지시간) 영국 팔머의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과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1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공을 다루고 있다.

라이튼의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언과의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1라운드 원정 경

기에서 0-1로 패했다. 주전 스트라이커 케인의 부재가 토트넘 공격력 저하로 이어졌다. 케인은 지난 리버풀전에서 발목을 다쳐 회복까지 수 주간 결장이 예상된다. 토트넘은 이날 총 8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브라이튼(16개)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상대 골문으로 향한 유효슈팅은 4개였다. 특히 전반에는 슈팅을 단 1개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부진했다. 첫 슈팅도 전반 30분에서야 나왔다. 무리뉴 감독은 케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흥민과 함께 스테판 베르흐베인, 가레스 베일을 선발로 내세웠다. 이날 베일은 단 1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후반 16분 교체됐다. 조력자 케인을 잃은 손흥민도 부진했다. 이날 총 2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이 중 1개의 유효슈팅도 골키퍼에게 향했다. 상대 뒤 공간을 활용한 침투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프로야구 10개구단, 우승 위한 본격 담금질 시작

코로나19로 모두 국내서 스프링캠프 돌입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스프링캠프에서 2021시즌을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다. 프로야구 구단들은 1일부터 스프링캠프를 시작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구단이 국내에서 훈련에 돌입했다. 각 구단은 추운 곳에서 훈련을 하는 만큼,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전경기(팀당 144경기)와 포스트시즌을 무사히 마친 선수들은 올 시즌에도 모든 경기를 소화하기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통합 우승팀 NC 다이노스는 2년 연속 우승을 위한 대장정에 들어갔다. NC는 창원NC파크, 마산야구장, 마산야구센터 내 보조구장을 사용한다. 2월 한 달간은 3일 훈련-1일 휴식으로 진행하며, 3월부터는 LG 트윈스(2회), 두산 베어스(2회), 삼성 라이온즈(2회), 롯데 자이언츠(3회)와 총 9번의 평가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서울 라이벌' 두산과 LG는 경기도 이전에 집을 풀었다. 두산 1차 캠프는 오는 18일까지다. 선수단은 이전 베이스파크 실내구장을 최대한 활용해 기술 연마와 전술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한다. 두산의 2차 캠프는 울산에서 시작한다. 투수와 야수들은 이곳에서 각각 라이브 피칭, 배팅을 소화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LG는 오는 27일까지 이전 챔피언스파크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LG는 3월2일부터 17일까지 NC, 롯데, KT 위즈, 삼성, 두산, 키움 히어로즈와 연습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프링캠프에는 류지현 신임 감독 및 코칭스태프 18명과 주장 김현수를 비롯한 선수 48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창단 후 최고의 성적을 올린 KT는 부산시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스프링캠프를 열었

다. 올해 KT의 스프링캠프는 기장과 울산에서 한다. 1차 캠프는 26일까지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진행되며, 체력, 전술 위주로 훈련한다. 오는 27일 울산으로 이동해 3월14일까지 문수야구장에서 2차 캠프를 소화한다. 이강철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12명, 선수단 43명 등 총 55명이 참가하며, 실전 위주의 훈련으로 국내 구단들과 7차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 키움은 스프링캠프 조건이 상대적으로 가장 좋다. 탐구장(고척 스키야드)을 홈으로 가진 이점을 잘 살렸다. 흥원기 감독을 포함한 총 42명으로 구성된 키움 선수단은 오는 3월

뛰지는 국내 훈련이다. 멧 윌리엄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8명, 선수단 37명 등 55명이 참가한다. KIA 선수들은 체력, 기술, 전술 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어 3월에는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KIA는 추위와 약천후 속에서도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방한 및 방풍 시설을 마련하는 등 스프링캠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롯데 자이언츠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훈련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부산 사직구장에서 국내 스프링캠프를 시작했다. 이번 국내 스프링캠프에는 허문회 감독 등 코칭스태프 10명과 선수 37명이 참가한다. 총 47일간의 훈련일정을 소화할 선수단은 3월부터 총 9차례의 연습 경기를 진행하며 3월19일 모든 훈련 일정을 소화한 후 시범경기 일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와 경산볼파크에서 이원화로 스프링캠프를 운영한다. 오는 16일까지 경산에서, 17일 이후에는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기본 훈련과 실전 훈련을 한다. 3월 1일 이후에는 연습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구단은 SK 와이번스다. 갑작스럽게 '신세계그룹'에 인수된 SK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강척항공원야구장에서 스프링캠프에 돌입했다. SK는 캠프 종료 시까지 3일 훈련, 1일 휴식의 일정으로 진행하며, 투수 21명, 포수 4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8명 등 총 43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SK는 캠프 기간 동안 포지션별 기술, 수비 훈련과 팀 전술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최하위의 수모를 당했던 한화 이글스는 1차 캠프를 경남 거제시에서 시작했다. 한화는 오는 14일까지 기후 환경이 좋은 거제에서 1차 캠프를 치르며 본격 기술 및 조직 훈련을 위한 체력 및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집중한다. 한화는 16일부터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캠프지를 옮겨 28일까지 2차 캠프를 통해 실전 대비에 들어간다.